활안 스님은

오로지 참선수행

천자암서 후학 이끌어



1926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다. 열세 살 되던 해 부모를 여의었으며, 몸이 퉁퉁 붓는 병을 얻어 3년여 동안 병치레를 했다. 이때 "아무런 죄도 없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천지성현께 따지겠다"는 생각을 했다.

출가 전에는 함경도 성진의 한 군수공장의 공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러다 인생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월정사에 들어갔다. 스무 살 때였다. 2년 후 월산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58년에는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오대산 상원사 청량선원, 지리산 칠불암, 범어사, 용화사 등 제방의 선원에서 40안거를 성만했다.

75년부터 조계산 송광사 산내암자인 천자암에 주석하며 후학들을 이끌고 계신다. 법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맞아들인다. 99년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선출되어 종단의 한 구심점을 이루고 있다.

전쟁원혼 천도재

20여년 계속된

스님의 새벽일과

다"고 툭 한마디를 던졌다. 이 말씀에 문득 경허스님의 일화가 떠올랐다.

젊은 스님이 노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경허스님이 답했다. "그대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게. 착함이건 악함이건 하고 싶은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게. 그러나 털끝만큼이라도 머뭇거린다든가 후회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네. 망설임과 후회만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게. 바로 이것이 산다는 것일세."

요즘 며칠 동안 감기를 앓아 몸이 편치 않았는데, 치아까지 심술을 부려 오랜만에 광주에 다녀왔다고 말씀을 이어갔다.

"내가 세상을 거튼히 이겼는데 치통은 이기지 못하겠더라구. 그래서 병원에 다녀왔지. 치과원장한테 '내 입의 주인은 당신 아닌가' 고 말했다"며 크게 웃음을 지었다.

활안스님은 스무 살 되던 해인 1946년 월정사로 발심 출가했다. 외숙모에 이끌려 석 달 동안 스님의 법문을 들고는 바로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환희심이 들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큰 병까지 앓은 터여서 삶에 대한 의문이 컸던 시기였다. 2년 후 월산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서른세 살 때 자운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이후 상원사 청량선원과 지리산 칠불암, 범어사, 용화사 등 제방선원의 선지식을 찾아 40안거를 성만했다.

'생멸미생전 시심마' (生滅未生前 是甚麼, 나고 죽는 이전의 나는 이뭣고)를 화두로 삼아 일념으로 정진했다.

워낙 철저한 수행이어서 오히려 대중들의 화합을 깰까 걱정이 들 정도였다. 한번 좌복에 앉으면 방선은 물론 공양시간을 넘기기 일쑤였다. 독살이를 저어했지만 광양 백운산에 움막을 짓고 생사를 걸었다. 백운산에서의 수행 4년만에 오도송을 읊었다.

通玄一喝萬機伏
言前大機傳法輪
法界長月一掌明
萬古光明長不滅

(스님께 뜻을 물었으나, "알도록 공부해라"는 한마디를 주신다. 우리말 풀이는 기자의 소행이다.)

통현의 할에 은갖 근기 굴복하니
한 생각 이전의 큰지혜로 법륜을 전함이로다.

법계를 비추는 달 손바닥을 비추니
만고의 빛은 다함이 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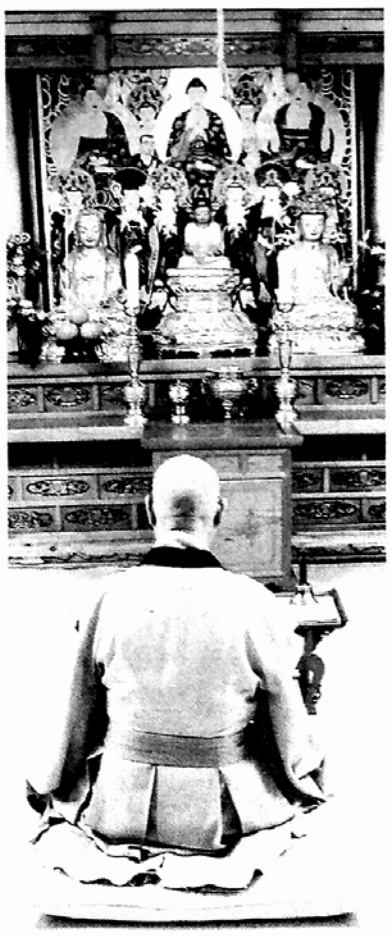
이즈음 송광사 구산스님에게서 전갈이 왔다. "천자암을 지킬 이는 스님뿐이니 천자암에 계세요."

매일 새벽 예불 때마다 날이 밝으면 백운산으로 돌아가야지 했는데 어느덧 스물다섯 해가 훌쩍 지나갔다. 당시 뼈대만 남았던 천자암을 누가 와서 살아도 큰 불편은 없도록 그럴듯한 도량으로 가꿔놨으니 이제는 언제든 떠나도 홀가분하다는 생각이다.

후학들과 신도들을 위해 흔한 법어집 한권 내는 것도 가당찮은 일로 여긴다. 어록은 가르침이 될만한 말씀을 모아 후학들이 펴내는 일이니 당연하다.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 또는 언어 너머의 경지를 문자라는 틀로는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스스로 체득할 수밖에 없는 경지를 어찌 말과 글로써 전하려 하겠는가. 개구즉착(開口卽錯), 입을 열어 혀를 놀리는 순간 뜻을 그르친다고 옛 어른들이 경계하지 않았던가. 그래도 거듭 여쭙자 부득이 했던지 말씀은 하시지 않고 또다시 게송으로 대신했다.

打破柱杖一塵山
三世佛祖失鼻孔
若人頓見有轉身
百草頭上無邊春

주장자 내리치니 티끌 산이 무너지고
삼세의 부처 조사 콧구멍을 잃었네.
누구라도 단박 깨쳐 부처 이루면
온갖 생명 피어나 천지가 봄일러니.



◇언제나 새벽예불로 하루를 시작한다.

"봉우리 선 모습만 머리에 차 있지 고개 넘고 내 건널 생각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대뜸 종문제일서(宗門第一書)로 꼽히는 〈벽암록〉의 저본격인 〈설두백칙송고(雪竇百則頌古)〉를 편찬한 설두스님의 일화를 꺼낸다.

"〈송고〉는 선문답과 설화, 일화 100가지를 모아 이에 대해 설두스님이 자신의 견해를 운문의 형식(頌古)으로 서술한 책인데, 설두스님은 이 〈송고〉를 쓰며 한 줄 쓰고 한 번 절을 했어요. 조사님네의 뜻을 그르칠까, 후학들에게 길이 될 수 있을까 했던 노심초사의 발로이지요. 요즘 글쓰는 사람이나 학자나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순서없이 마구 튀 줄만 알았지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방향이 없어요. 먼저 할 일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일을 먼저 해놓고 남을 원망합니다. 산봉우리에 선 모습만 머리에 꽉 차 있지 고개를 넘고 내를 건너는 다리품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다르지 않아요."

무릇 일거수일투족이 철두철미해야 한다는 일갈이다. 우리 몸이 우주를 품고 있듯,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정성을 다 하면 우주가 감응하는 이치를 밝혀준 말씀에 다름 아니다.

아무래도 범부중생인 기자에게는 어려운 가르침이다. 글자풀이에만 매달리니 "한 호흡 내쉴 때 천지를 살려내고, 한 호흡 들이쉴 때 천지의 생명을 거둬들여 마무리한다"는 노스님의 깊은 뜻을 종잡을 수 없다.

해우소 문짝 십육절지에 '활안 합장' 하며 불여놓은 '보왕삼매론'의 가르침이 더욱 간절한 게 솔직한 심정이다.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대도(大道)는 안정에서 생기고,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눈을 조심하여 그릇됨을 보지 말며, 입을 조심하여 이 되지 않는 일에 부질없이 시비하지 말고, 항시 참되고 너그러운 말을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그릇된 자를 멀리 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

글 · 정성운/사진 · 고명배 기자
(swjung@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 혜원스님



동국대 교수 혜원 스님은 아주 아주 어릴 때 출가한 동진출가인이다

5살때 은사스님이 어머니인줄 알았고 법당에 계신 부처님이 아버지인줄 그렇게 알았단다. 남부럽지 않은 은사스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어린 시절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못지 않게 밝게 자랐다. 그래서 혜원스님은 재능과 특성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도와주신 은사스님의 은덕을 늘 잊지않고 지금도 고인이 되신 은사스님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 나라의 50년대는 어떠했는가. 아니, 절집의 50년대는 어떠했는가. 공부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 동냥을 다녀야했던 시기였고, 또 염불이나 익히고 절집 공부가 전부였던 시대였는데 스님의 은사스님은 혜원스님에게 학교공부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절 집에서는, 절집 공부 외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은 세속으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당시 어른스님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동진출가 스님들 대부분은 단계적인 학교공부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혜원스님의 은사스님은 그래도 생각이 열린 분이 아니셨는가 생각이 든다. 또 혜원스님의 재능이 탁월했고, 남다른 영특함이 보였기 때문에 유학도 보내고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신 것 같다.

언제나 책상앞에 앉은 모습

겸손하고 인정많은 스님

내가 강원을 다닐 때 혜원 스님은 이미 모든 이력을 마치고, 명성여고 윤리학 선생으로 아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내가 강원을 졸업하고 내원사 선원에 있을 때는 대학에 출강을 하고 있었다. 나와는 다른 길을 가는 그런 도반이었다. 그러나 길은 다르게 가지만 우리는 자주 편지로 서로의 생각과 안부를 전하고 서로 시간이 맞으면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하는 지기(知己)였다. 가끔 보내온 편지에서 스님은, 자신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보시행을 하기 위한 포교를 강조했고, 서울로 올라온 나에게 학교 공부를 할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해 주었다. 사실 그때만 하여도 혜원스님에 대해서는 겉으로 나타난 외형적인 모습과 가끔 만나 나는 정담이 전부였지, 알 것 모를 것 다 아는 그런 도반의 관계는 아니였는데도 스스럼 없이, 먹고 지낼수 있는 것 외에 교통비, 때론 용돈까지 주셨다. 그때 혜원스님이 기거했던 세검정 소림사에는 나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학교 다니는 스님들이 함께 기거했는데 혜원스님의 적지 않는 배려를 입고 있었다.

서울인심이 시골인심보다 매서운 곳임에는 절집의 서울 인심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혜원스님은 공부하겠다는 스님들에게 이 정도도 해주지 못한다면 절집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성의껏 베풀어 주었다. 혜원스님은 외모에서 풍기는 여성스러움과는 달리 의욕이 아주 강하고 추진력도 있으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스님은 교수라는, 사회적으로 직책높은 명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책을 과시하거나 남용하지 않는다. 배운 만큼 고개숙이고 겸손할 줄 아는 스님, 인연이 되면 어떤 사람이건 꼼꼼히 챙기고 자기 것 인양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스님이다

나는 혜원스님의 학문의 깊이는 잘 모른다. 또 어떤 모습으로 교단에 서서 강의를 하는지는 잘 모른다. 헌데 몇 해전 일이었다. 청소년지도자 교육이 있어 한달 가량 스님의 토굴에서 신세를 졌던 일이 있다.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그때는 그것이 왜 그리도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스님이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 일정치는 않았지만 대부분 밥 먹는 시간외에는 책상 앞에서 다음날의 강의 준비와 번역에 몰두하고 있었다. 또 내가 아침에 일어 나 보면 어느새 일어났는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있다. 도반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아침준비까지 완료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며 혹 내가 불편해 할까봐 공부하는 틈틈이 나를 챙겨



주었다. 도대체 잠을 몇 시간 잘까 궁금해 하루는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몰래 체크 해보니 겨우 4시간정도 자는 듯 싶었다. 나도 부지런한 사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는데 혜원 스님의 하루 일과를 보고는 부지런하다고 자부하던 내가 부끄러웠다.

스님은 잡문을 잘 못 쓴다고 누누히 말하고 또 글을 여기저기 잘 게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가끔 보내오는 스님의 편지를 읽노라면 누가 시인인지 수필가인지도 모를 만큼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 많아 무디어져 가는 내 시심의 밭에 큰 자양분 역할을 하기도 한다. 꿋꿋하게 자기자리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오늘의 불교, 아니 내일의 불교를 다듬어 가고 있는 그 모습, 후학들을 위해 무언가 힘이 되겠다는 그의 서원은 오늘도 한치의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달려온 시간이 무겁다고 때론 아우성칠 줄 알고, 세월만큼 무르익지 않는 학문에 대해 회의도 느낄 줄 알고, 불교 안팎의 문제에 분노를 표현할 줄도 아는 스님이 혜원 스님이다. 그러한 스님이 굳세게 버티고 있는 한 우리 불교의 앞날은 밝을 것임에 틀림없다. 圖 세원사 주지

四柱推命學情解書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 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인간(人間)은 누구나 다 행복을 追求한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운명(運命)을 알고 그 運命에 대하여 대처(對處) 한다면 흉화(凶禍)의 액(厄)을 면(免)하고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바뀌지 않겠는가 .

청신 김성진 지음 신국판/양장본 값3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흩어진다.
4.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다보 김용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신비의 꿈해몽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새천년 새꿈
『신비의 꿈해몽 그 베일을 벗긴다』
화제의 신간
꿈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꿈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여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이해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 책의 구성 〈꿈이란 무엇인가(길몽 흉몽)〉〈태몽, 그 출생의 비밀〉〈꿈풀이 삶풀이〉
■ 부록 〈결혼 부부궁합〉
장현우 박사 지음/신국판 /값 17,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이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A5신/양장본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체서 명리진평 신국판/체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체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체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용식 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완 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법룡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법룡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상욱 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백 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김윤중 편저/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양장본 김성진 저 /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해몽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 정현우 저 /정가 17,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광성B/D 3층T.921-8434 F.929-3470

금강불교대학 2545년(2001) 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본 대학은 국내최고의 교수진으로 3년간 22과목을 가르치는 국내 최고의 불교교양대학으로써 한국 불교중흥에 이바지 할 천태종 종립교육기관입니다. 입학의 문은 불교신도가 아닌 누구에게도 열려 있으며,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합니다.

1. 모집학과 및 전형

학과과정	지역(기수)	교육년한	교과목	교육일시	지원자격	특전
불교학과	서울(19기) 부산(14기)	2년	1학년 불교학개론, 불교문화사, 인도불교사, 불교문의 원시불교, 금강경, 중국불교사, 한이사상 2학년 한국불교사, 법화불교, 정토사상, 비교종교론, 대승불교론, 신사상, 천태학개론 불교심전도이해	1학년 매주 월 화 2학년 매주 목 금 1교시 오후 6시30분 - 90분간 2교시 오후 8시 -90분간	고졸이상 학력소지자 및 2000학년도 졸업 예정자 천태종 총무원장 또는 주지의 추천인	수업료 종단지원 교법사과정 진학 자격취득
교법사과정	서울(8기) 부산(8기)	1년	포교방법론, 천태종학, 불교학특강, 포교실습, 유식사상, 육묘법문, 불교의식, 의식교육	매주 수 목 1교시 오후 6시30분 - 90분간 2교시 오후 8시 - 90분간	1 본대학 2년 수료자 또는 2 불교전문 교학과정 2년 과정의 수료자	수업료 종단지원 포교사 자격증 수여

학과	모집정원	원서교부 및 접수	제출서류	원서료 및 전형료	전형방법	면접일시
불교학과	서울 부산 각 120명	가 기간 2000년 11월 13일부터 2001년 2월 5일 오후 4시까지 나 접수처 서울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가 입학원서1부(본교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1통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라 반명함판사진 5매(원서봉표함)	가. 원서료 5,000원 나. 전형료 10,000원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면접	서울 2001년 2월 21일 (오후4시) 부산 2001년 2월 13일 (오후6시)
교법사과정	서울 부산 각 50명		불교학과 구비서류 + 본대학2년 수료증명서 또는 불교전문교육과정 2년 수료증명서1통	가. 원서료 5,000원 나. 전형료 20,000원		서울 2001년 2월 21일 (오후4시) 부산 2001년 2월 22일 (오후6시)

2. 교수진 소개 (불교계 국내 최고의 정상급 교수진)
이재창 원의범 정태혁 김영태 리영자 권기종 서윤길 장충식 김상현 조용길 이봉춘 강동균 곽만연 권탄준 김용표 이은윤 최봉수 김사업 장휘옥 최종석 허경구 지창규

3. 대학위치
서울 : 서울 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내
- 양재역 성남방면 7번출구 마을버스 5, 6번 버스
- 강남역 6번출구 414번 버스
부산 :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131번지 삼광사내
- 어린이대공원 인접지역에 위치함

4. 원서 교부 및 문의처
서울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서초구 우면동 관문사 2층)
전화 : 02-576-6401-2 팩스 : 02-574-1541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부산진구 초읍동 삼광사 지관전 1층)
전화 : 051-808-0730 팩스 : 051-819-7654

대한불교 천태종 금강불교대학장